

광산구 삼도동에 스마트팜 식물공장 들어선다

팜에이트(주)-광산구 투자협약
공장 150억 들여 11월 완공
내년부터 가공식품 생산·유통

민선 7기 광산구가 김삼호 구청장과 공무원들의 협업으로 150억원 규모의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17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광산구와 팜에이트(주)은 광주시청에서 광산구 삼도동에 수경재배 시설과 채소가공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협약에 따라 농협회사법인 팜에이트(주)(대표 강대현)는 150억원을 들여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스마트팜 식물공장을 짓고, 지역민을 고용해 가공식품 생산·유통에 나선다. 오는 5월 착공해 11월 완공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정상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 식물공장은 5739㎡ 부지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신축되며, 재배랙 150기, 자동세척조 9대, 절단기 10대, 포장기 9대 등을 설치한다.

또 지역민 90여명을 고용해 재배랙에서 친환경 무농약 농산물을 재배한다. 생산된 농산물은 지역 농산물과 함께 가공돼 샐러드 등 완제품으로 소비자의 식탁에 오른다.

이번 식물공장 유치는 김삼호 광산구청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2004년부터 경기도 평택을 거점으로 스마트팜을 운영해온 강대현 대표는 지난해 남부지역 거점인 핵심 생산기지를 광주에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김삼호 광산구청의 기업 유치에 대한 열정을 보고, 최종 투자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삼호 청장은 팜에이트(주) 강대현 대표가 공장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지난해 10월 해당 기업 관계자를 초청해 투자계획을 확인하는 한편 같은해 11월에는 경기도 평택의 기업 본사를 방문해 식물 공장을 직접 둘러보기도



경기도 평택에 있는 팜에이트 스마트 팜 식물공장에서 직원들이 식물 재배 작업을 하고 있다.

〈광산구청 제공〉

했다.

사업성을 확인한 김 청장은 구청 담당부서와 공장 입지에서 투자 인센티브까지 지원할 방법들을 발빠르게 마련하고, 팜에이트(주)에서 제시한 3~4곳의 공장 예비부지에 대해 적합성 여부를 진단하는 등 기업 편의를 적극 도왔다. 광산구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동한 팜에이트(주)는 지난해 12월 공장 부지 매입을 완료했다.

광산구는 기업 유치에 그치지 않고 해당 기업이 국·시비를 지원하는 '투자인센티브 지원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와도 연결 고리를 마련했다.

광산구의 노력으로 팜에이트(주)는 15억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강 대표는 "남부지역 거점을 구축해 핵심생산 기지로 활용하고자 준비하던 과정에서 광산구를 최적지로 판단, 투자를 결정했다"며 "지역 고용 인력 확대와 지방정부의 세수 확보, 지역 농가의 수익 개선에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광산구는 이번 투자 유치를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선도하고, 코로나19로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 농정 클러스터 구축, 미래농업 혁신성장 지원 등을 본격 추진해 지역에 더 많은 기업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내 자신이 농촌 출신인

덕분에 그동안 끊임없이 농업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왔다"면서 "농업에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농촌·농민과 상생하는 투자 계획을 들고 적극 지원에 나선 결과, 투자 유치라는 성과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한편 삼도동에 식물농장을 설립할 팜에이트(주)는 새싹재배로 시작해 국내 최대 식물공장 운영하고 있는 샐러드 제품 공급 기업이다. 지난해 12월 남극 세종기지에 식물공장을 제작·납품했고, 쿠웨이트와 일본 등으로 수출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농업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디지털경제 전환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광주시, 수급가구 미혼자 대상

광주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중 학업, 취업 등 사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 등 요건들을 갖춰야 한다.

신청인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관계인 등이며, 지원을 희망할 경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인 온라인('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모와 청년 가구가 각각 거주하는 지역의 기존 임대료 상한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기존에는 수급가구 내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살면 부모와 동일한 가구로 인정돼 별도의 임대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제도 시행 후에는 부모와 떨어져 지내고 있는 청년에게도 임차료 지원이 가능해져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윤 광주시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주거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시민평화통일교육 보조사업 공모

광주시, 25일~3월2일 접수

광주시는 "2021년도 시민평화통일교육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소재하고 최근 5년 이내에 1년 이상 통일관련 사업 수행경험이 있으며, 주된 사업이 평화통일 분야와 관련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사업은 ▲통일 현장 체험 프로그램 ▲통일교육 기획자·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사업 ▲통일교육주간 기획사업 ▲비대면·온라인 형식의 문화사업 등 광주시의 평화·통일교육 취지에 맞고 시민이 능동적으로 체험·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대상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3월2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시민평화통일교육사업'을 검색한 후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시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류 및 면접 심사, 2차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등 2단계를 거쳐 지원단체 및 지원 금액을 최종 결정하게 되며, 선정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명순 광주시 평화기반조성과장은 "올해에는 사업 기획부터 추진까지 시민이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산구 코로나 극복 위한 경제백신회의 '무담보 1% 초저금리 대출' 국회도 주목

이광재 의원, 대정부 질문서 광산구 대출 모델 확산 주장

광산구 코로나19 극복 민관산학 거버넌스 '광산경제백신회의'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국회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강원 원주시갑)은 지난 8일 국회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파산 및 현금 가뭄 극복 방안'의 하나로 광주 광산구 1% 초저금리 무담보 대출 모델의 전국 확산을 요구했다.

이 의원이 제기한 광산구의 모델은 광산경제백신회의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총 12탄의 '경제백신' 중 8번째와 12번째 정책이다.

'1% 희망대출'과 '사장님 다시서기 희망론'으로 진행된 광산구 경제백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 중 저신용·저소득 영업을 위해 마련됐다. 두가지 대출은 지난해 6~8월, 10~11월, 11~12월 세 차례 진행했다.

지원대상은 연매출 1억 이하로 코로나 전후 매출이 20% 감소한 저소득·저신용자, 대출규제 소상공인, 소액카드론 대출자, 무등록자영업자 같은 정부지원정책 사각지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로, 1년 동안 무담보 1% 금리 조건에 1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대출금리 4.5% 중 대출자가 1%를 부담하

면, 광산경제백신회의에서 모금해 둔 광산경제백신펀딩에서 나머지 3.5% 금리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다. 광산경제백신회의는 세 차례에 걸쳐 총 328명의 15억660만원 대출을 도왔고, 5322만원의 이자를 보전해줬다.

특히 광주어룡산업, 비아산업, 서광주세마을 금고 등 5개 지역 금융기관이 함께 이번 대출 사

업에 참여해 경제위기를 상생의 가치로 돌파하는 모범을 창출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광산구 민관산학 거버넌스가 만들어낸 경제백신이, 전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부 정책으로 자리잡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의 협업으로 생산해낸 더 많은 민생정책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정책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발족한 광산경제백신회의는 두 종류의 대출 이외에도 '광산경제백신펀딩' '공동체 일자리 광산형 시민수당' '광산구 사장님 활력지원금' '소상공인 냉방비 지원' '안심존 프로젝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백신 처방을 이어오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과 상담]